

『2003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준) 청년학생위원회』 제 4 차 공동대표 회의 자료

□ 일시 : 2003년 4월 27일(화) 19시

□ 장소 : 홍익대학교 와우관

□ 참가단체 :

전국단체 - 대한불교청년회, 민족종교협의회 청장년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민주당 청년위원회, 세계평화청년연합, 원불교청년회,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동우회, 천도교청년회, 청년통일광장, 청년학생통일대회 준비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가톨릭 청년학생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회) (이상 20개)

지역 - 인천, 광주전남, 제주, 대전, 울산, 부산, 서울, 경남 (이상 8개)

부문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그림공장, 우리나라 (이상 3개)

일반회원단체 - 경실련청년회,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수원, 원주, 청주, 청춘 (이상 6개)

◎ 주요개요

회의진행순서

1.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준비 경과 보고
2.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대표자 회의' 남측 안 마련을 위한 토론
주최: KYC, 한청, EYC
3시 대별찬 (70분)
3. '2003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준) 청년학생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토론
한청 체계 운영안

1.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준비 경과 보고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준비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3·1민족대회'에서 남북 청년단체 대표자간의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2003년 남북청년학생 교류 행사에 대한 전반적 고민들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2003년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를 개최할 것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남북청년학생 대표자들이 규모있게 참가한 가운데 실무접촉을 가져 확정하자는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 북측에 4월 4~7일 중국 심양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에서는 3월 13일부로 팩스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팩스에서는 실무접촉의 성격보다는 현 정세를 반영해서 '남북청년학생대표자 회의'로 하고 일정을 5월 초에 하자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북측에 의견에 대해 청학위 집행단 회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단 회의에서는 일단 북측의 의견을 받아 명칭을 수용하되 회의 내용은 교류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접촉 및 상호 이해 증진의 내용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북측에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북측에서는 15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낸 온 팩스에서는 4월 23-25일 개최될 남북청년학생 대표자 회의에 대한 의제를 명시해서 보내왔습니다.

북측에서 제시한 것은

1.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할 데 대하여로 하고 북과 남에서 각자가 의제에 대한 기초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고
2. 이 기회에 2003년 북남청년학생연대운동계획을 함께 토의 하자는 의견
3. 공동문건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청년학생통일선언"을 채택하고 그 초안을 북측에서 작성하고 검토는 금강산에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북측에서 보낸 온 팩스에 대해서 남측에서는 이전부터 중심으로 논의해왔던 2003년 청년학생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귀측이 제안한 내용도 함께 토론하자라고 의견을 보내려 했는데 16일에는 북측에서 보내온 팩스에 대한 답신을 어떤 내용으로 보낼 것인가를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북측이 제시한 의제를 보았을 때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라는 것을 이유로 의제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북측이 제안한 안으로 남북회의를 주장하면 정부당국이 불허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을 공유하고 그럼 어떤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1. 회의를 연기하고 전체 추진본부 실무협의를 청학위 대표가 참가하여 북측과 의제 조정 작업을 진행한 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
2. 일단 남측이 준비해오던대로 교류사업 실무협의를 상호 이해 증진을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북측에 다시 한번 팩스로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논의를 한 후 일단 북측에 남측의 사정(의제 조정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빨리 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북측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지난 18일 북측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남측이 보낸 17일자 팩스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팩스에서는 남측의 상황에 의해 예정되어 있는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남측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는 금강산 현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의견을 받아 남측 정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대표자 회의 개최 여부는 남측 정부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